

공동체 소식



대림 주일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명 그 자체 입니다.’

대림 주일 동안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내면서, 하느님이 주신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가슴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합니다.



12월 기도지향

- Jason Savage, 박동희(안나) 가정
김민호, 이지혜(로사) 가정

대림시기

대림 시기는 '예수 성탄 대축일' 전의 4주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는 성탄 대축일을 준비하면서 다시 오실 구세주를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 지향

매 달 공동체 내의 두 가정을 선정하여 기도를 봉헌한지 일 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공동체는 첫 침례 미사와 십자가의 길, 목주기도뿐만 아니라, 그 달의 모든 미사, 영성체, 목주기도, 십자가의 길, 봉사 등을 지향 가정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판공성사

12/16(일) : 3 ~ 5구역
중심미사 한 시간 전, 그리고 미사 후 성사 보실 수 있습니다.

성탄 및 새해 전례

Table with 4 columns: Date, Event, Time, Location/Notes.

12/31(화) 송년미사는 없습니다.

기타

- 새해 공동체 달력이 나왔습니다. 가정 당 1부 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2013년 매일미사 책 신청 받습니다. 1년 구독료는 60불입니다.
성탄 대축일 맞이 제대 꽃 봉헌 받습니다. 전례분과에 문의 바랍니다.
오늘 중심미사 후, 평협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중심미사 후, 성탄 전례 회의가 있습니다.
12/23(일) 구역회에서 떡국 떡 판매합니다.

전례 성가

Table with 4 columns: Title, Verse, Text, Page.

주일미사 복사

Table with 3 columns: Day, Title, Author.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Table with 3 columns: Role, Name, Book Reference.

애찬 봉사자

Table with 2 columns: Day, Name.

헌금 봉사자

Table with 3 columns: Day, Name, Amount.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드셔서 감사합니다!!!

<12월 9일>
- 미사참례 : 102명
- 주일헌금 : \$481
- 교 무 금 : \$2270



대림 3주일
자선 주일

"믿음이 깊으면 기도를 하고, 기도가 깊으면 전례에 적극 참여한다"

2012년 12월 16일

미사시간
주 일 : 11: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회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부회장 정수한 베드로
재무 차호섭 요셉

오늘의 전례



오늘은 대림 제3주일(자선주일)입니다. 요한 세례자는 곧 오시는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자세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성화해설

여산 숲정이는 호남의 관문으로 일찍이 천주교가 전래되어 수많은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순교자를 배출한 대표적인 순교성지이다. 이곳은 병인박해 중 급산, 진산, 고산에서 잡혀 온 신자들이 참수·교수는 물론 백지사형(얼굴에 물을 뿜고 백지를 여러 번 붙여 질식사킴)을 받고 순교한 곳으로 순교자들의 무덤은 천호 성지와 그 인근에 있다.

주호식 파트리치오 신부 | 서울대교구 전산정보실장

제 1 독서 : 스바 3,14-18 <주님께서 너 때문에 환성을 울리며 기뻐하시리라.>



기 뻐 하며 외쳐 라 너 희가 기릴 분은 이스 라엘 의 거룩 하신분 이 시 로 다

- 진정 하느님께서서는 저의 구원이시기에 제가 당신께 의지하오니 무서울 것 없나이다.
주님께서서는 저의 힘 저의 노래 저의 구원이로소이다.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리라.
주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외쳐 불러라. 그분께서 하신 큰 일을 만민에게 알리고 그 높으신 이름을 잊지 않게 하여라.
그분께서 큰 일을 하셨으니 그분을 찬양하고 이를 온 세상에 알려라.
수도 시온아 기뻐하며 외쳐라. 너희가 기릴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로다.

제 2 독서 : 필리 4,4-7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복 음 : 루카 3,10-18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쉐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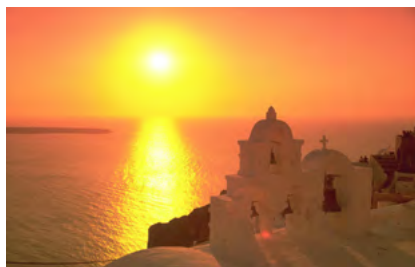
“대통령 선거에 부쳐”



교형자매 여러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날이 다가옵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사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인지는 모두가 잘 알고 절실히 느끼는 그대로입니다. 남북 관계는 점점 더 어려워져서 자칫 전쟁으로까지 확대될 위기를 느끼기도 합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1% 대 99%라는 말이 잘 대변하는 대로, 부자와 가난한 이들 사이의 간격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재벌들이 운영하는 대형 슈퍼마켓이 중소도시까지 점령하여 지역민들이 운영하던 소규모의 상점들은 대부분 서리 맞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4대강에 쏟아 부은 천문학적 자금 때문에, 지난 정권들이 마련했던 사회안전망은 약화되고 허물어져 가난한 이들 중 많은 수가 갈 곳을 잃었습니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를 숨기고, 가짜 부품을 써가면서까지 억지로 밀어붙이는 핵에너지 정책 때문에, 우리 국토 전체가 무서운 재앙의 위협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줄줄이 드러나는 권력형 부패와 공직자들의 비리까지 더해져서, 결국 대한민국은 점점 살기 어렵고 절망스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속한 나라들 가운데 자살률은 최고, 출산률은 최하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분야에서까지, 그 혜택은 극소수의 몇 사람에게 돌아가고 대부분의 국민에게는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선거 유세 기간에 쏟아내는 공약들이 말잔치에 그치고, 그 뒤 펼쳐지는 현실은 그 약속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역사가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우리나라에 정말 희망찬 미래를 열어줄 인물이 누구인지를 잘 식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후보와 소속 정당의 공약을 찬찬히 살펴보는 한편, 그 사람됨과 지나온 삶을 눈여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의 가르침과 비교하여, 누가 과연 나라와 국민 전체의 공동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인지를 충분히 알아본 다음, 귀중한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해야 하겠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국민은 공동선의 축진을 위해서 실시하는 자유 투표의 권리와 의무를 잊지말아야 한다.”(사목헌장, 75항)



이 모든 것은 5년 전, 우리가 대통령을 잘못 선택한 데에 큰 원인이 있습니다. 그 때 국민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습니까? 한 후보가 747 공약으로 상징되는 경제 살리기를 기치로 들고 나와 장밋빛 미래를 제시할 때, 거기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겪어온 현실은 정 반대여서, 국민 대부분의 생활은 오히려 훨씬 나빠졌고, 나라 전체로는 발전했다는

● 전주교구장 이병호 빈첸시오 주교

마 중 물

라과디아 판사

미국 뉴욕의 시장 중 남달리 유명했던 라과디아가, 뉴욕시의 즉결 재판부 판사로 있을 때입니다. 어느 날 빵을 훔치다 체포되어 기소된 노인을 재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찌하여 빵을 훔쳤느냐고 노인에게 묻자 노인은 울먹이면서 “죄송합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지나가다가 나도 모르게 손이 갔습니다.” 라고 자기 잘못을 시인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 같은 죄인으로 벌금 내실 분이 있으시면 내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모자를 벗어 들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47불을 모금해서 노인에게 주었고 그 노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재판정을 나갔다고 합니다. 참으로 인간적이란 말의 의미는 기계적인 의나 컴퓨터식의 상벌도 아니며 인과응보의 날카로운 비판도 아닙니다.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그 곳에 인간미가 있습니다.

재판장은 “당신의 죄는 10불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벌금 10불을 내시오” 라고 판결을 하고서는 자기 지갑을 열어 10불을 내놓으면서 “이 10불은 내가 내겠습니다. 이처럼 배고픈 사람이 뉴욕 거리를 헤매고 있었는데 나는 그동안 너무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 죄로 이 벌금은 내가 내겠습니다.”



‘신앙의 해’ 교육자료



4. 신앙의 해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신앙의 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몫, 곧 인류의 구세주, 우주의 임금님, “믿음의 영도자이시며 완성자”(히브 12,2)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자 각자가 체험하고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은혜로운 시기가 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신자는 신앙의 선물을 되살리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신앙인은 자신의 신앙과 사랑의 경험을 타종교의 형제자매들에게 전하고, 비신자나 신앙에 무관심한 이들과도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여야 할 구원의 소식”을 받아들였음을 의식하고, 더불어 살고 일하는 이들에게 열심히 선교해야 합니다(교황청 신앙교리성).

5. 신앙의 해는 우리에게 어떻게 초대할까요?

신앙의 해는 우리에게 온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이신 주님을 향하여 돌아서라고 초대합니다. 이는 회개하라는 초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 안에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의 용서를 통한 삶의 회개로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 보이십니다(사도 5,31 참조).

신앙의 해에 “우리 믿음의 영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히브 12,2)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하겠습니다. 인간 마음의 모든 고뇌와 갈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족됩니다(믿음의 문 13항).